

李穀의 산문에 나타난 나눔 문화의 양상과 의미*

- 「借馬說」과 「義財記」를 중심으로

서신혜*

Ⅰ 차례

- I. 시작하며
- II. 「차마설」 논의와 확장: 나는 남에 기대어 산다
 - 1. 「차마설」의 구조와 주제: 기존 논의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2. 「차마설」 논의의 나눔 문화로의 확산
- III. 「의재기」 논의와 확장: 가족에서 사회로 확산하는 나눔
 - 1. 「의재기」의 구조와 주제
 - 2. 「의재기」의 나눔 문화로의 확장: 가족에서 사회로 확산하는 나눔
- VI. 마치며

【국문초록】

복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나눔 문화'의 연원을 찾아 문헌적으로 실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그 한 사례로, 이곡의 산문 두 편에 주목하였다.

「차마설」에는, 세상의 모든 재물이나 지위 등은 모두 다른 사람이 내게 '빌려 준 것'이라는 인식이 나온다. 이런 인식에는 서로간의 관계성을 중시한다는 점, 지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20267).

**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조교수

위 등의 유동성을 인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인식을 확장하면, 누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남과 함께 나누어 쓰고, 나누어 주며 사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것이 나눔 문화를 이룰 수 있다.

「의재기」에서는, 형제는 경시하고 봉우만 가까이 하는 풍조를 지적하며 형제가 우선이라고 강조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仁의 마음을 확충시키고 확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형제 우애 강조 뿐 아니라 순서의 문제를 강조한 것인데, 이것은 나눔 문화에서 중요하다. 가족에 대한 마음을 확산할 때 결국 모든 사람을 가족 같이 대하게 되어 온 세상으로 나눔이 확산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이곡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다른 이들의 글에도 비슷한 인식이 보인다. 이 논문은 고려 후기에 나눔 문화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고 폭넓게 있었다는 것이 대한 실증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나눔 문화, 이곡, 차마설, 의재기, 仁의 확충

I. 시작하며

이 논문은 이곡의 산문 중 「차마설」과 「의재설」을 살펴보아, 이것이 요즘 부각되는 ‘나눔’ 문화와 어떤 연관성으로 읽힐 수 있는지 살핀 것이다.

최근 한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전반으로 많이 논의 되는 것이 소위 ‘나눔’이다. 나눔은 자선이나 기부, 박애, 구제 등의 용어와 섞여 구분 없이 쓰이면서 그 경계가 모호한 단어이기도 하다. 정의가 분분하지만¹⁾ ‘나누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둘 이상’의 사람이

1) 김형용은 「포용적 사회와 나눔 문화의 현실」, 『한국의 나눔문화와 복지사회』, 아산사회복지재단, 2013, 91-95쪽에서 ‘나눔의 개념’을 여러 각도로 설명한 바 있다. 참조할 만하다.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점, 이기적인 것과는 다른 이타적인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이 나눔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데에 대체로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타적이라는 것은 남만 위한다는 것도 아니요 나만 위한 것도 아닌 나를 포함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범박하게나마, 나눔이란 둘 이상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상호간에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생각 등을 나누어 이기적인 이익 이상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나눔이라 정의하겠다. 이것은 자선이나 기부 보다는 더 상호 협력 관계를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눔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것의 역사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우리나라에 '나눔 문화'라는 것이 있었는지, 혹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떻게 있었는지 등 우리 옛 역사 가운데에서 그 연원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두레나 품앗이 같은 민속 행위에 관한 이야기만 주로 될 뿐²⁾, 구체적인 문헌 근거로 인식의 실체를 찾아내는 일은 미미하다. 그나마 논의되는 자료 역시 대부분 조선 후기나 일제 강점기의 것이다.³⁾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조선 시대 이전의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나눔 문화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필자는 고려 후기의 인물 李穀(1298-1351)을 주목하였다. 그는 고려 후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신진사대부 관료이자 학자였다. 그는, 고려 후기 대표

2) 주강현, 『한국의 두레』1, 집문당, 1997.

3) 이광모 외 2인, 「다산의 복지공동체 행정사상 연구-『牧民心書』의 “愛民6條”·“賑荒6條”를 中心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24집 3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10, 139-164쪽.; 이세영, 「조선후기의 勸分과 富民의 실태」, 『역사문화연구』34,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157-263쪽.; 한신애, 「광주지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일제 강점기부터 고도 성장기를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57쪽 등.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현대보다 이전시기의 나눔 관련 상황과 제도 등을 알 수 있지만 이들은 단편적이거나 조선후기 이후의 것에 한정되어 있다.

적 학자이자 정치가인 李齊賢(1287-1367)이 주관한 과거에 합격함으로써 그와 좌주-문생의 관계를 맺어 이후 정치적으로 같이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 그의 아들은 고려에 대해 끝까지 신의를 지킨 三隱의 하나인 李穡(1328-1396)이다. 이곡은 조선 건국의 일등 공신인 鄭道傳(1342-1398)의 아버지 鄭云敬(1305-1366)과 가까운 친구 사이이기도 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그들의 아들인 이색과 정도전이 잘 아는 사이였고, 이들은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드러나듯 그는 고려후기에 발흥한 신흥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조선을 풍미한 우리나라 성리학의 원류에 해당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곡과 같은 신흥사대부가 성장하여 결국 성리학을 바탕으로 조선을 건국하고 이끌어갔다는 면에서 볼 때, 또 그의 활동 내용이나 친분 관계로 보아 그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사상적 흐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나눔 문화의 전통을 논하며 그의 글을 살피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논자는 이곡의 산문 중에서 두 편에 주목하였다. 우선 이 글이 기존에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것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글인지 1차적으로 읽어보겠다. 그 후에 논의를 확장하여 이 글을 나눔의 맥락에서 읽을 가능성을 따지고 그 의미를 살피겠다.

나눔 문화와 관련하여 조선 이전 사회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없다. 20세기 초반의 국학자였던 최익한이 1940년대 초에 우리나라 빈민 구제 정책에 대해 신문에 연재한 것을 현대 학자가 책으로 엮은 것⁴⁾에서 조선 이전 사회 나눔 문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문 연재물이라 내용 실증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곡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있다. 사대부와 성리학 관련 연구,

4) 최익한 저, 송찬섭 편, 『조선 사회 정책사』, 서해문집, 2013.

정치 현실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다.⁵⁾ 그의 한시, 가전문학, 몇몇 산문에 관한 연구도 여럿이다.⁶⁾ 일일이 다 거론하는 것은 지면의 한계도 있고, 이 논문의 주제와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글의 대상이 되는 두 작품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를 언급하기로 한다.

II. 「차마설」 논의와 확장: 나는 남에 기대어 산다

1. 「차마설」의 구조와 주제: 기존 논의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문 문체의 하나인 ‘설’은 일상의 예를 통해 인식적인 주제를 형상화 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식의 특성상 다양한 주제로 읽힐 소지가 있다. 논자는 이런 맥락에서 이 작품이 폭넓게 읽힐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중 한 가지 이해 방식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서술을 진행하겠다.

이곡의 「차마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해서 비교적 잘 알려진 작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단일 연구는 별로 없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찍이 김대행은 이 작품의 주제가 ‘말을 빌려 타는 일에서 느낀 인생의 도리’⁷⁾라고 하였다. 유이경은, 국내의 정치 현실 문제가 군신, 부자, 부부, 주종간의 관계의 잘못됨에서 비롯

5) 고희령, 『고려 후기 사대부와 성리학 수용』, 일조각, 2001, 1-307쪽. ; 김인호, 『고려 후기 사대부의 경세론 연구』, 혜안, 1999, 1-287쪽 등

6) 이병혁, 『고려말 성리학 수용기의 연구』, 태학사, 1989. ; 황재국, 『가정 이곡의 한시 연구』, 보고사, 2006, 1-286쪽 등.

7) 김대행, 「이곡의 「차마설」과 사교의 틀」, 이상의 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767-769쪽.

되었다고 판단하여 ‘빌립’으로써 사회관계의 상하에 대한 정체성을 제시한 것⁸⁾이라 하였다. 일찍이 고려 후기 사대부에 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한 고혜령은 「차마설」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소유에 대한 허무적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모든 것이 남에게서 빌렸다가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면 탐학과 쟁탈이 없어지게 될 것인데, 이는 물질 소유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이것은 유자로서 불교를 공존적으로 인식한 이곡의 사유 방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⁹⁾

주제에 대한 이런 여러 설명은 대체적인 맥락에서는 서로 같고, 그 안에서 약간의 가감만 있다. 김대행은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그 주제 안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유이경의 경우는, 그의 말처럼 이 글이 상하관계의 정체성만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구도로 읽는 것이 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방향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고혜령의 설명 중 이곡이 이 글로 소유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고 한 것 역시 적절한 지적이라 본다. 하지만 이곡이 성리학 도입에 힘쓴 신흥사대부이고, 그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 무척 애를 쓴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곡의 이 글과 불교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차마설」에 대한 단일 연구로, 주제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히 말한 이는 신원기¹⁰⁾이다. 편의상 작품의 실상을 살펴본 후에 신원기의 논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보자.

먼저 살림이 넉넉지 못하여 남의 말을 빌려 탄다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8) 유이경, 「이곡의 설 작품 연구-설 장르 성격 규명을 위한 예비적 고찰」, 이화여대 국문과 석사논문, 2003, 44-47쪽.

9) 고혜령, 앞의 책, 2001, 232쪽.

10) 신원기, 「넓은 ‘읽기’를 위한 「차마설」 해석」, 『문창어문논집』36집, 문창어문학회, 1999, 27-61쪽.

나는 가난하여 말이 없으므로 가끔 말을 빌려서 탄다. 노둔하고 비리한 놈을 얻으면 일이 급하더라도 감히 채찍질을 하지 못하고 전전공공하며 넘어질 것처럼 하고, 도랑이나 구덩이를 만나면 내려서 갔다. 그래서 후회되는 일을 만나는 경우가 적었다.

말굽이 높고 귀가 날렵한 놈을 얻으면 달리고 또 달리며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을 잡고 고삐를 늘어뜨린 채 달려 언덕이나 골짜기도 평지처럼 보면서 매우 통쾌하게 갔다. 그렇지만 종종 위태롭게 떨어지는 화를 면하지 못하였다.¹¹⁾

남의 말을 빌리는 처지에 어떤 말을 빌려달라고까지 할 수는 없기에 빌린 말이 건장한 경우도 있고, 야윈 경우도 생긴다. 이곡은 이 두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당연히 건장한 말을 타는 것이 좋고, 비리한 말은 좋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낮선’安危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이 부분에 주목하게 하였다.

그런 후에 비로소 문제를 제기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 쉽게 바뀌는 것이 이런 지경에 이른단 말인가. 하루아침 쓰려고 빌린 물건에도 이러니 진짜 소유한 경우라면 어쩔 것인가.(噫! 人情之移易, 一至此邪. 借物以備一朝之用, 尚猶如此, 況其真有者乎.)” 이 문장만을 본다면 ‘감정이 바뀌는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것도 같다. 하지만 앞부분의 두 대조를 ‘예상과는 다른安危’라는 결과물로 제시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 문장은 ‘물건 사용’의 행태를 다루고 있으며 그 행태의 차이가 ‘후회 없음’과 ‘화를 당함’을 가르는 열쇠가 됨을 말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감정의 바뀔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

기존 논의 중 신원기는 「차마설」 전반부의 주제는 ‘실수의 다소’가 아

11) 李穀, 『稼亭集』 권7, 「借馬說」: 余家貧無馬, 或借而乘之. 得駑且瘦者, 事雖急, 不敢加策, 兢兢然若將蹶躓, 值溝塹則下. 故鮮有悔. 得蹄高耳銳, 駿且駛者, 陽陽然肆志着鞭縱鞭, 平視陵谷, 甚可快也. 然或未免危墜之患.

니라 ‘기분의 바뀔’에 있었는데, 뒷부분은 ‘소유’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의 균열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부분의 여윈 말은 낮은 지위나 보잘 것 없는 권력을 의미하는 상징이요, 날랜 말은 높은 지위나 큰 권력을 의미하는 상징이라고 설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했다. 그러므로 앞부분 말의 예는 지위나 권력이 보잘 것 없을 때는 처신에 신중하여 실수가 적고, 지위나 권력이 높을 때에는 처신이 방만하여 실수가 많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는 ‘말을 타는 일에서 느낀 인생의 도리’라기 보다 ‘힘 있는 자에 대한 경계’ 특히 ‘임금과 신하에 대한 경계’라고 하였다.

이곡이, 원나라 지배하의 고려 정치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활동했고, 이에 관한 여러 글을 남긴 것을 생각할 때 신원기처럼, 정치적인 의미로 「차마설」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개연성 높은 일이라 생각한다. 후반부의 ‘모든 것이 빌린 것’이라는 논의에서 군신간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하고, 마무리 역시 권력 문제로 했으니 군신간의 권력 문제에 상당한 비중이 있음은 틀림없다. 신원기는 특별히 주제 문제를 말하면서, 「차마설」의 주제는 ‘임금과 신하는 조심하고 경계하라’이지 ‘소유에 대한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둘은 공존할 수 있으며, 오히려 후자에 대해 열어둘 때 보다 넓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차마설」의 끝부분은 이렇게 된다.

진실로 혹 잠깐 사이에 빌린 것을 돌려주게 되면 만방의 군주라도 외톨이 사내가 되고, 백승의 가신이라도 외로운 한 신하가 된다. 하물며 미미한 자이라. 『맹자』에 “久假而不歸，烏知其非有也”라 하였으니, 내가 이때에 어떤 느낌이 있으므로 차마설을 지어서 그 의미를 확장해 보노라.

신원기는 이곡이 인용한 『맹자』의 구절 바로 앞에 “요순은 본성대로

하신 것이요, 탕무는 실천하신 것이요, 오패는 빌린 것이다”라고 한 것이 있다면 맹자의 말은 ‘소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패가 사리사욕을 채운 것을 나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맹자』의 이 구절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단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만 했다. 이 구절이 그의 말대로 ‘오패가 사리사욕을 채운 것을 나무란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패가 사리사욕을 채운 것’과 ‘소유’의 문제라는 것이 대척되는 지점이 아니다.

해당구절의 원문은 ‘堯舜性之也, 湯武身之也, 五霸假之也. 久假而不歸, 烏知其非有也.’¹²⁾이다. 번역을 조금 자세히 해 보면, ‘요순은 타고났고, 탕왕 무왕은 몸에 익혔으며, 춘추오패는 차용하였다’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타고났다는 것은 ‘인위의 성품’에 관한 것이다. 요순은 인위의 성품을 타고 나서 결국 타고난 그대로 행한 사람들이요, 탕왕이나 무왕은 인의를 몸에 체득하여 결국 그렇게 산 인물이다. 하지만 춘추오패는 천하를 재패하고 다스릴 욕심에 ‘인위’라는 명분과 이름을 내세우며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그들이 끝내 스스로 인위의 성품을 이루지는 못하였다는 지적이다. 단지 욕심을 채울 필요를 위해 그 명분과 이름만 이용했을 뿐 끝내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차마설」에서 이곡이 인용한 대목 “久假而不歸, 烏知其非有也”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맹자』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구절까지 다 고려하여 해석한다면 이렇게 된다. 해당 원문은 “오래도록 빌리고 돌아가지 않았으니 어찌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리오.”라고 해석한다. ‘歸’, 즉 돌아간다는 것은 『맹자』 원문의 ‘性之’나 ‘身之’와 같은 것을 표현한 것이다. 도라고 부르든 인

12) 『孟子』, 「盡心上」

의의 성품이라고 부르든, 이것을 가지고 이것대로 사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표현한 말이다. 다시 말해 ‘귀’ 역시 그런 도나 인의의 성품을 완전히 하거나 회복하는 데에 성공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차마설」에서 이곡은 이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실제로는 도나 인의를 이루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명분만 그럴싸하게 내세우는 것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이해해야 한다.

반면, 『맹자』에는 실렸지만 「차마설」에는 없는 구절은 고려하지 않고 「차마설」에서 인용한 것만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한다면 이렇다. “오래도록 빌리고도 돌려주지 않았으니 어찌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리오.” 이 때 귀는 ‘돌려주다’, ‘반환하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借 즉, ‘빌려주다’라는 것에 대한 상대어로서의 ‘돌려주다, 반환하다’의 의미라고 읽는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뒷부분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과 연결된다. 이때는 성품의 문제라기보다 말 그대로 재산이나 지위 등의 세속적인 만물의 의미일 것이다.

어느 해석이 더 자연스러울까? 중간 부분에서 이곡은 ‘사람이 가진 것 중에 모든 것이 남에게 빌린 것’이라고 하면서 임금과 신하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지식, 지아비와 지어미, 주인과 종까지도 그렇다고 했다. 그렇다면 단순히 군신문제, 정치문제, 위정자들의 문제로만 귀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구절 바로 앞에 있는 ‘만방의 군주라도 외톨이 사내가 된다’는 내용은 『書經』 「泰誓 下」에서 가져온 것이다. 거기에서는 폭군 紂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백성을 어루만지지 않고 학대하는 사람은 스스로 天命을 끊고 人心을 떠난 ‘獨夫’라고 하였다. 군주라도 덕을 세우지 않고 악을 쌓으면 결국 하나의 보통 사내, 한 명의 외톨이 사내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군주뿐만 아니라 백승의 대부를 거쳐 미천한 신분의 사람까지도 그렇다고 하였으니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단순히 국가 정치권력의

문제, 위정자의 문제가 아니다. 잃은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요,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잘 하는 것'이다. '잘할 대상'을 '덕'이라고 할 수도, '인의'라고 할 수도, '선'이라고 할 수도, '의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대체로 의미는 같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귀'의 의미는 아무래도 '본성의 회복'이라기보다 빌린 자리나 기회를 돌려준다는 '반환'의 의미가 강할 테니 앞의 두 해석 중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요컨대 「차마설」이 '소유'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고 조심히 행하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2. 「차마설」 논의의 나눔 문화로의 확산

「차마설」의 주제를 이렇게 열어놓고 볼 때, 이 작품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나눔 문화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이 된다. 이곡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빌린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것 중 무엇인들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있는가. 임금은 백성에게서 힘을 빌려 존귀하게 되었고, 신하는 임금에게서 권세를 빌려 총애 받는 귀한 신분을 얻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버에게서, 종들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린 것이 또한 많은데, 대부분은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며 끝내 반성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것이 아니겠는가.¹³⁾

13) 李穀, 『稼亭集』권7, 「借馬說」: 然人之所有, 孰爲不借者. 君借力於民以尊富, 臣借勢於君以寵貴, 子之於父, 婦之於夫, 婢僕之於主, 其所借亦深且多, 率以爲己有而終莫之省, 豈非惑也. 苟或須臾之頃, 還其所借, 則萬邦之君爲獨夫, 百乘之家爲孤臣, 況微者邪.

임금, 권세 가진 신하의 문제로 말문을 열었다가 부자 간, 부부 간, 주종 간의 문제로 확산하였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한 ‘사람이 가진 모든 것’에는 고관대작 같은 지위나 어마어마한 재물뿐 아니라 가정, 거처, 신분, 일자리 등 소소하고 일상적인 모든 것이 포함된다. 부귀영화는 더 말할 것 없을 테고 나머지만 생각해 보자. 부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나 자식, 거처 등은 배우자가 있어서 얻은 것이며, 종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일거리나 그들이 지닌 ‘누구네’ 종이라는 유형·무형의 울타리 역시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조심히 행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본래 자기 것인 냥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세상 모든 매커니즘이 서로간의 ‘빌림’에 기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누구나 평안히 잘 살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매우 의미 있는 인식이다.

기본적으로 지위나 재산 등이 모두 빌린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야말로 나눔의 여러 의미 중 ‘나누어 쓰다’라는 맥락과 연결되는 것이다. 물건이나 돈을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물건을 나누어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상대가 준 기회 덕에 내가 그 지위에 앉아 그 권세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기회’를 ‘나누어 쓰는 것’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사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요, 당연히 나눔 문화의 성립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런 의식의 일단을 「차마설」에서 살필 수 있다.

또 빌린다는 것은 빌려 준 사람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임금과 백성간의 관계, 자식과 부모와의, 부부 간의,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상대에게서 받아 자신이 누리고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간에 공유하거나 나누는 것이 많아지며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사람은 소유한 재물이 적다고 불만을 가지면서 ‘내 것을 누군가 빼앗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차마설」에서는, 그 모든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상대를 ‘내게 빌려준 사람’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확산할 때 인간 상호간의 관계의 깊이는 깊어지고 화목의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다.

I 장에서 ‘나눔’은 자선이나 기부보다 더 ‘상호 협력 관계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물건 뿐 아니라 존재의 모든 것이 상대와의 관계성에 기대고 있다는 인식이야말로 나눔 인식의 밑바탕이다. 그래서 「차마설」은 나눔 문화의 시각에서 의미 있는 글이다.

관계성과 함께 지적할 만한 것이 지위의 유동성이다. 기본적으로 동양 문화권에서는 권력의 중심이 백성에게 있다. 서양의 경우 王權神授說로 대변되듯 왕권의 정통성이 신에 있었다. 하지만 동양은 신을 상정하지 않았다. 天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人心은 곧 天心’이라는 말처럼, 기본적으로 천이라는 것 역시 백성과 교집합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마디로 ‘爲民’의 바탕 위에 왕권이 성립한다. 앞서 논하였던 대로 「차마설」 뒷부분에서 이곡은 주임금의 예를 들었다. “만방의 군주라도 외톨이 사내가 되고, 백승의 가신이라도 외로운 한 신하가 된다. 하물며 미미한 자이라.” 봉건사회에서 왕은 천하제일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요 고정된 것도 아니다. 그가 위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때 천하는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보통의 사내, 즉 獨夫가 된다고 하였다. 왕과 보통의 한 사내가 서로 유동 가능한 것이다. 지위, 권력은 빌린 것일 뿐 소유한 것이 아니기에 반환하면 자기는 보통의 한 백성이 되는 원리이다. 군주뿐만 아니라 “백승의 가신이라도 외로운 한 신하가 된다. 하물며 미미한 자이라.”

라 하였으니 이 원리는 모든 사람, 모든 자리에 적용된다. 지위 등의 유동성을 염두에 둔다면 사람들은 각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요, 그 자리를 준 이들에 대해 선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자신이 언제고 다른 입장으로 갈 수 있으므로 상대를 생각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것이야말로 나눔의 기본 정신 중 하나이다.

물론 「차마설」에서는 ‘신하가 임금에게서, 지어미가 지아비에게서, 종이 주인에게서 받은’ 경우만 설명하여 상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완전히 평등한 상호 관계 설명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상하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으로부터 모든 권력 등을 빌려서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상위의 사람이 허락해 주고 빌려준 것으로 하위의 사람이 누리고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받은 사람은 상위 사람이 대한 충심을 가진 채 몸가짐을 조심하여 자기의 것을 누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상하관계의 정점에 있는 임금조차도 그 왕좌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그 왕좌 역시 천명과 민심에 따라 바뀌어 왕이 한 사람의 獨夫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논의가 된다. 상호간에 빌림과 빌려줌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간에 존재와 누림의 바탕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곡이 「차마설」에서 보여준 인식은 이 작품에서만 보이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곡은, 왕정의 득실과 세금의 경중 간의 관계를 물은 향시의 책문¹⁴⁾에 대해 답하면서, 당나라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을 긍정적 사례로 들었다. 당나라의 경우 ‘재물은 사람들 공동의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백성은 하늘이 준 것이니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財者人財也, 吾不可專也, 民者天民也, 吾不可慢也.’라고 여기며, 모든 정사를

14) 『稼亭集』권13, 「[財用盈虛戶口增減爲國者止深計] 鄉試策」

펼 때 신중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의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진나라 등과는 달리 오래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백성은 하늘의 것인데, 왕조가 그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차마설」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 된 생각과 같다. 같은 생각을 표현하되 하나는 문학작품으로, 하나는 程文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백성이 하늘의 것인데, 왕이 빌려서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재물이 사람들 공동의 것’이라고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곡은 천하의 재물은 한정되어 있어서 몇몇이 함부로 쓰면 나머지가 쓸 것이 없어지는 공동의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재화나 지위 등을 공유하고 나누어 써야 하는 원리를 설명한, 나눔 인식으로 나아갈 만한 좋은 예이다.

이곡의 「차마설」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인식은 비슷한 시기 다른 이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서 나눔 인식의 전통과 시대사적 맥락에서도 의의가 있다. 비슷한 시기 인물인 이규보가 지은 「농사꾼을 대신하여 읊다 (代農夫吟)」라는 시 중 첫 번째 수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빗속에 김매며 논바닥에 엎드려 있다보니	帶雨鋤禾伏畝中
추하고 시커먼 꼴 어찌 사람 몰골이라만	形容醜黑豈人容
왕손 공자들아 나를 멸시하지 말라	王孫公子休輕侮
그대들 부귀호사 나로부터 나온다	富貴豪奢出自儂 ¹⁵⁾

농사짓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로 비 맞고 때로 엎드려 일하여 흙투성이가 되기도 하여 보기에 깨끗하거나 우아하지 못하다. 부자들은 자기의 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 냥 하지만 하늘은 비를 내리듯 쌀을 내려주지는 않는다. 실제 일을 하여 생산을 해낸 후에야 돈을 가진 개

15)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後集1, 古律詩 一百五首, 「代農夫吟 (二首)」

인이 돈과 산물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남의 수고를 빌려야만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저절로 나오는 냥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 부자는 힘들게 일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빌려서 식량을 얻어 생명을 유지하는 빌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부귀한 자들은 그런 수고를 생각하지 못하고 농사꾼을 무시한다. 이에 대해 이규보는 농부의 목소리로 말한다. “그대들 부귀호사가 나 같은 농부로부터 나온다”라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나온다는 지적이다.

돈 자체가 식량이 되거나 어떤 쓸모 있는 물건이 되지는 않는다. 사람의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실제 물품은 늘 생산자인 어느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 물품이 있어야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해 내가 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온전히 나의 것이라 할 수 없는 남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 역시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생각이다.

Ⅲ. 「의재기」 논의와 확장: 가족에서 사회로 확산하는 나눔

이곡이 남긴 산문에 「의재기」라는 것이 있다. 조선시대에 비해 고려시대에 대한 연구가 적고, 그나마의 연구도 성리학 관련 사항에 치중한 탓에 이곡이 남긴 여러 글 대부분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의재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 글은 나눔 인식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는 글이다.

1. 「의재기」의 구조와 주제

「의재기」는 이곡과 그의 벗 이경보의 문답 형식으로 적은 글이다. 봉우와 형제 중 누가 더 친하냐는 이경보의 질문에 이곡은 형제가 더 친하다고 하였다. 이 대답을 들은 이경보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봉우의 일만 서두르고 형제의 일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시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해 이곡이 자세히 설명한다. 이후 이경보는 자신의 친인척 20여 명이 재물을 出捐하여 義財라 명명한 일을 설명하며 기문을 지어 달라 하였었고, 이곡이 그 행위를 칭찬하며 기문을 짓는 것이 이 글이다.

이곡은, 형제는 등한시하고 봉우의 일은 급히 하는 풍조의 원인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한다. “이는 욕심을 따르고 이익을 좋아하는 데 따라 생기는 폐해이다.” 그 후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가) 대개 유년기에는 누구나 아버이를 친애하고 커서는 형을 공경할 줄 아는데, 이 仁義의 마음을 점차 확충해서 내부로부터 시작하여 외부로 적용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품부 받은 성품이 참되게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행할 길이라고 할 것이다.

(나) 조·쌀·생선·고기, 그리고 삼베·목화실·명주실·솜 같은 것이 곧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입고 하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욕심을 따르고 기이한 것을 좋아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속 공급하기 어려운 물건이나 비싼 별미를 구해서 口腹에 맞게 하고 신체에 편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구복에도 맞지 않고 신체에도 편치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에 따라 생기는 폐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 형제에 대해서는 항상 보는 사람이라고 하여 무례하게 아무렇게나 대하는 경향이 농후하여 친애하고 공경하는 일은 아예 힘쓰려고도 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시기하고 의심하며 화내고 싸우는 등 못할 것이 없이 제멋대로 굴곤 한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권세와 이익으로 유인하기도 하고, 돈과 물건으로 통하기도 하고, 술과 음식으로 즐기기도 하는 등, 돈독하게 친애하고 견고하게 결탁하는 면에서 또한 못할 것이 없이 한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이미 권세와 이익이라고 말했다시

피 권세와 이익이 다하고 나면 서로 유인했던 것이 이번에는 서로 해치기에 안성맞춤인 것으로 변하고 만다. 그러니 돈이나 물건이라든가 술이나 음식 같은 잔단 것이야 말할 것이 또 뭐 있겠는가. 이는 욕심을 따르고 이익을 좋아하는 데 따라 생기는 폐해인 것이다.

(㉔) 사람의 기본 윤리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성인이 차서를 매긴 그 조목을 보면 君臣에 대해 말하고, 父子에 대해 말하고, 부부와 형제에 대해 말한 다음에 봉우는 맨 마지막에 언급하였다……

(㉕) 그 본말의 차원에서 보면 본래 질서 정연하여 바꿀 수 없는 점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常棣라는 시가 나오게 된 까닭이라고 하겠다. 그 首章을 보면 ‘아가위 꽃송이 활짝 피어 울긋불긋, 지금 어떤 사람들도 형제만 한 이는 없지.’라 하였고, 3장에서는 ‘저 할미새 들판에서 호들갑 떨듯, 급할 때는 형제들이 서로 돕는 법이랴오. 항상 좋은 벗이 있다고 하지만, 그저 길게 탄식만 늘어놓을 뿐.’이라고 하였으며, 5장에서는 ‘환란이 일단 지나고 나서, 사태가 안정되어 몸이 편해지면, 비록 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친구만 못하게 여기도다.’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형제와 봉우 사이의 관계는 그 도리가 이와 같은 데에 지나지 않으니, 이 시를 상세히 음미해 보면 성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¹⁶⁾

이 글은 記文이지만 두 대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문학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어려서는 누구나 아버지와 형제를 공경한다. 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16) 『稼亭集』卷2, 「義財記」: 蓋孩提愛親, 及長敬兄, 擴而充之, 由內及外者, 天性之眞而人道之常也. 且如粟米魚肉麻縷絲絮, 衣食之常也, 苟或從欲好異, 必求難繼之物非常之味, 以適於口腹, 以便於身體, 不惟不適不便, 將不勝其害矣. 人於兄弟, 曰惟其常, 流於褻慢, 而不務於愛敬, 甚者猜嫌忿鬪, 而無所不至, 至於它人, 或勢利以相啗, 貨財以相通, 酒食以相歡, 親愛之篤, 結託之固, 而亦無所不至. 雖然, 既曰勢利矣, 勢利之竭, 則其相啗者適足以相害耳, 貨財酒食之細, 曷足道耶. 此從欲之害而好利之弊者也. 人之倫有五而聖人序之, 其目曰君臣, 曰父子, 曰夫婦兄弟, 而朋友居其終……然其本末, 固有秩然而不可易者, 此常棣之詩所由作也. 其首章曰, 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 至於三章曰, 脊令在原, 兄弟急難, 每有良朋, 況也永嘆, 五章曰, 喪亂既平, 既安且寧, 雖有兄弟, 不如友生, 自古兄弟朋友之間, 其理不過如此, 詳味此詩則聖人之意可見矣. (한국고전번역원 역, 이하 같음)

가진 인의의 성품 때문이다. (㉞)에서는, 이런 인의의 마음을 확충하는 것이 인간의 바른 도리라고 말한다. 이 부분은 다음 부분의 이야기에 대한 대전제이며 기준을 미리 제시한 것이므로 이후 이야기도 이에 의해서 살펴야 할 것이다.

(㉞)와 (㉟)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다. 논의의 핵심인 부모 형제 공경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선 더 친근한 예인 衣食을 끌어들인다. 의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보게 하는 기법이다.

늘 먹는 음식, 늘 입는 옷에 대해 우리는 그 편리함 등을 인지하지 못하며 산다. 그래서 때로 투정하고 함부로 한다. 뭔가 평소에 못 먹어본 음식을 먹고 못 입어본 옷을 입으면 한 때는 기분이 좋지만, 이것은 계속 먹거나 입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활동에도 편하지 못하다. 그제야 평소 먹던 음식과 평소 입던 옷의 고마움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보았음직한 이런 원리를 설명하고는 형제와 봉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늘 보던 형제에 대해서는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하면서 친구나 타인과는 더 없이 친해지려고 늘 노력한다. 하지만 후자가 아무리 견고하게 결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권세와 이익 때문에 맺어진 관계이므로, 얻을 것이 없으면 오히려 그간 알게 된 모든 것으로 상대를 해치려 하는 폐해가 난다고 지적했다. 어찌다 먹는 별미가 놀랍게 좋았다가 결국 속이 불편했던 경험을 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므로 이를 통해 관계의 법칙이 이해되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는 특별한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요 늘 있는 평상의 것, 늘 옆에 있는 형제가 귀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㊱)에서는 화제를 전환하여 삼강오륜을 끌어온다. 삼강오륜에서는 군신 간, 부자 간, 부부 간, 형제 간을 말한 다음에 봉우 간의 관계를 언급

했다. 물론 봉우 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말의 차원에서 보면 봉우보다는 형제가 먼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㉞)에서 『시경』 중에 「常棣」를 인용하고 있다. 이 시는 본래 8장인데 그 중에 이곡은 세 장을 인용하였다. 상체, 즉 아가위 꽃은 여러 개의 꽃잎이 모여 선명한 꽃을 이루는데, 그것으로 형제 간의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이 시이다. 1장에서는 그 어떤 관계에도 형제만한 것이 없다고 한 후 이에 대한 근거로 3장을 말하며 급한 일을 당할 때에는, 벗이 아니라 형제가 돕는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곡이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상체」2장에서는 ‘처형당하여 시체가 쌓이는’ 두려운 때에 그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찾아나서는 것은 형제라고 하면서 ‘급할 때’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예를 들었다.

이 기문을 쓰는 계기가, 벗에게 하는 것과 형제에게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으므로 「상체」 중 벗과 형제의 차이에 대해 극명하게 대비하는 부분만을 인용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3장과 5장이었던 것이다. 이들 시에서는 급할 때에 물론 친구도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을 제치고 급히 돕는 이는 형제라고 함으로써 친구와 형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 그런데도 막상 어려운 때가 지나면 다시 벗이 더 좋을 줄 아는 당시 사람들의 실태에 대해 노래한 5장을 인용했다.

이 곡은 마지막에 “이 시를 노래한 성인의 뜻을 살피라”는 주문을 한다. ‘성인의 뜻’이란 무엇인가? 이곡이 인용하지 않았지만 「상체」시의 6~8장에서 이 노래의 종합 주제가 보다 분명히 나온다. 진수성찬이 있어도(6장), 부부 간의 사이가 좋아도(7장) 형제 간이 화합하여야 진정 즐길 수 있는 법이라면서 이 원리를 살피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8장)고 한다. 결국 이 곡은 「상체」 시를 통하여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마친 이곡이 이경보에게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질문하

는 이유가 뭐냐”고 말문을 돌린다. 그제야 이경보는 친척 형제들 20여 명이 재물을 모아 그것으로 ‘義財’를 만든 뜻을 설명한다.

(배) 나에게는 가까운 형제와 먼 형제를 모두 합쳐서 20여 인이 있는데,지금 각각 기금을 약간씩 출연하여 義財라고 명명하고는, 해마다 두 명씩 교대하여 번갈아 가며 주관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달이 그 이자를 받아서 慶弔와 送迎의 비용에 대비하는 한편,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장차 구휼하고 賑贖하는 밑천으로 삼으려 하는데, 앞으로 자손들로 하여금 이 법을 계속 지키면서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는 대개 范 文正公이 설립한 義田의 고귀한 뜻을 본받으려 함이니, 세상에서 행인들을 끌어와 형제처럼 대우하면서 정작 자기 동기들은 원수처럼 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¹⁷⁾

형제 친족 20명이 재물을 내어 서로 돕고 구휼하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행인은 형제처럼 대하면서 자기 형제는 원수처럼 대하는’ 세태와는 다르게 살려한다는 말은 이곡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이다.

처음에 세태를 지적하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이곡이 경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 후, 의재를 모은 사연이 나오므로 앞뒤가 이어진다. 그래서 이곡이 기뻐하며 「의재기」를 짓는 것으로 글이 마무리 된다. 이렇게 하여 형제 간의 사랑과 도리가 강조되는 것이 이 글이다.

2. 「의재기」의 나눔 문화로의 확장: 가족에서 사회로 확산하는 나눔

앞서의 논의에서 보인 대로 이 글은 형제 간의 우애에 그 강조점이

17) 吾有親兄弟遠兄弟二十餘人而與之游, 切切焉怡怡焉. 而又今各出錢若干, 命之曰義財, 歲更二人而迭主之, 月取其息, 以備慶弔迎餞之用, 苟有羨餘, 將以爲救恤賑贖之資, 俾子孫守之此法而勿失焉. 蓋慕范文正公義田之遺意也. 其與世之援路人爲兄弟, 視同氣如仇讎者, 則有間矣.

있다. 하지만 이 글은 또 다른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은 형제 간의 우애를 말하기도 하였지만, (가)~(마)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단순히 형제 우애를 강조한 것이 아니요, 이것을 ‘순서’의 문제와 함께 다루었다.

우선 앞부분 (가)에서 그 핵심을 말했다. 이곡은 부모와 형제에 대한 공경을 ‘인의’로 규정했다. 단순히 인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충’하여 내부로부터 외부로 ‘확산’해 가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 부모 형제에 대한 사랑과 도리를 강조하되 그것이 ‘먼저’인 것을 강조한 것이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외부, 즉 다른 사람이나 사회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함께 읽을 수 있다.

유교 문화권에서 ‘인’은 ‘惻隱之心, 仁之端’¹⁸⁾이라 하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설명한다. 맹자는 아이가 우물에 기어들어가려는 것을 보면, 사람이 그 부모에게 무슨 보상을 받을까 계산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그를 구하게 된다는 것으로 인을 설명했다. 그러므로 ‘인’을 강조한 「의재기」의 논리는, 가족에 대한 마음과 행동을 확산하여 다른 사람, 남에게까지 하는 ‘나눔’의 의미로 확장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현대 학자 중 이광모 등은 다산의 『목민심서』에서 현대 복지공동체 행정사상을 읽어내었는데, 그 이론적 배경이 유교에서 말하는 仁義, 忠恕의 이념 원리였다. 즉 사람들이 남도 나처럼 아끼고,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인의, 충서의 원리에 따른 것이 결국 공동체의 원리가 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복지공동체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¹⁹⁾²⁰⁾ 인을 강조한 「의재기」의 인식을 나눔 문화로 연결할 수

18) 『孟子』, 「公孫丑 上」

19) 이광모 외 2인, 앞의 논문, 2010, 142쪽. 이외에도 비슷한 설명이 있었다.

20) 정수현·정경조는 서양의 Noblesse oblige과 나란히 갈만한 동양의 가치규범으로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의제기」에서, 보다 명확히 순서의 문제를 드러낸 부분도 있다. (㉔)에서 이곡은 삼강오륜의 순서를 이야기하였다. 삼강오륜은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부자와 부부와 형제 등 가족을 말한 다음에야 봉우를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곡은 봉우간이 ‘責善으로 輔仁하는’ 관계이므로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순서’의 문제가 있다면 가족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논리로 나아간다.

이 기문을 짓는 궁극적 이유 설명에 해당하는 (㉕)를 보면, 형제들이 같이 재물을 모아 관리하면서 쓸모에 대비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재물로 한다는 일은 경조와 송영 비용, 구휼이다. 풀어 쓰면, 기쁜 일에 축하하는 비용으로 쓰고, 슬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조하는 데 쓰며, 사람을 보내고 맞이하는 데 성의를 표하며 비용을 대고, 어려움에 처하면 나누어 주어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 그대로 ‘나눔’이다.

이경보의 경우 친족 간만 모여 재물을 출연하여 소용에 대비하게 하였으므로, ‘나눔’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 글은 ‘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되, ‘순서’의 문제를 함께 말하면서 그 ‘우선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의 개념을 끌어와 내부에서 외부로의 ‘확충’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친족 간의 ‘의제’ 출연을 통한 소용 대비는 범위를 넓혀 다른 사람,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나눔’으로 이어져 이해될 수 있다.

患憫를 들었다. 유학에서 ‘仁’을 실천하는 구체적 지침으로 患憫를 제시하였으며, 이것이야말로 나를 미루어 남을 헤아린다는 것이니 남에 대한 배려나 구제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했다.(『동·서양 이상적 인간상의 가치규범-患憫와 Noblesse oblige』, 『한국사상과 문화』6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인이 아니라 충서로 설명하기는 했지만, 충서는 인의 하위 개념 혹은 실천 개념으로 썼으므로, 「차마설」의 인식이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인정한 또 하나의 예라 하겠다.

(㉞)에서 이경보가 자기 친족들간에 재물을 출연한 일을 범문정공의 의전에 빚대었다. 범문정공, 즉 范仲淹은 송나라의 명재상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그가 자기 재산 중 비옥한 토지 1000畝를 내어서 의전이라고 명명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친족들을 공양하고 구제하였다. 錢公輔의 「義田記」에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이경보는 바로 이것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여기에 빚댄다. 범중엄의 경우 친족들 여럿이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요, 자기 혼자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어서 구제를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의 의미는 형제 우애라기보다, 그의 ‘내 것을 내어 남을 돕는 의로운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의재기」는 형제 우애의 중요성과 우선성을 강조하는 주제를 드러내면서, 그것의 실제적 실천으로서의 의재 출연 문제를 칭찬하고 격려한 글이다. 동시에 그 주제를 형상화할 때 ‘순서’의 문제를 함께 드러냄으로써, 가족과 형제에 대한 마음과 행위가 점점 확충되어 사회 전반의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을 바탕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 이를 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역시 이곡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에 공통된 인식의 예가 보여서 이곡의 이 글의 의미를 더해준다.

고려 공민왕 때 裴德表라는 인물의 행적과 그의 행적을 기록한 李詹(1345-1405)의 기문이 좋은 사례가 된다. 배덕표가 집을 짓고 그 집의 이름을 흥인원이라고 한 후에 이첨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원은, 사찰이 중심이 되어 건물을 지어서 행인에게 쉼을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이다. 사찰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 행하는 나눔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이었다. 개인의 집에 ‘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가 행인처럼 이 집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글을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대해 썼는데,

요체는 그가 四端 중 특히 仁에 뜻을 두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학문적인 궁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데,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나눔의 사례로 들 만 하다.

먼저는 부모 봉양과 조상을 받드는 것을 잘 하며 농사와 축산도 열심히 하여 식구들을 잘 양육했다고 했다. 이침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므로 그 시행하는 것이 근본이 있다고 할 만한 것이다.(所施可謂有本矣)” 가족이 근본인데 근본을 잘 했다는 평가이다. 여기에서 그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으나 내용은 이어진다.

약초를 캐어다 정성껏 調製하였다가 동네에서 병자가 생기면 곧 치료하게 하며, 재물을 늘리는 데 힘쓰되 저축을 하고는 베풀 줄을 알아서 흉년이 드는 해에는 곧 나누어주고, 궁한 백성들이 부역에 시달려 하소연할 곳이 없으면 관청에 말하여 구원해 주는 것 같은 일을 仁의 미치는 범위가 넓다고 할 만하다. 또 가축을 때에 맞추어 잡고, 꽃과 약초를 제때에 심으며, 대나무를 시기를 따라 벌채하는 것들은 仁의 시행이 넓다고 할 만한 일이다.²¹⁾

그의 행위는 이웃은 물론이요 동물이나 식물 등의 자연에까지 미친다고 하였다. 이웃 병자를 치료하고, 힘써 일하여 저축해 놓은 것을 적절한 때에 풀어서 백성을 구하고, 단순히 먹는 문제뿐 아니라 법률 등 억울한 문제 해결도 도와서 해 주었다고 했다.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평소 미리 약초를 캐어 조제해 놓았다고 한 점, 생명 구호와 비교적 관련성이 적은 억울한 사연 호소 문제까지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구제 차원 이상의 나눔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농사와 축산도 열심히 한다

21) 李詹, 『東文選』 권77, 「弘仁院記」: 至若採掘鄉藥, 專心劑和, 鄉里有患病者, 輒命理之, 務於生財, 積而能散, 年分或饑歉, 卽發賑之, 窮民困於徭役, 無所控告, 立言於官以掄之, 仁之所及, 可謂周矣. 以至家畜以時宰之, 花藥以時栽之, 竹木以時伐之. 仁之所施, 可謂弘矣.(한국고전번역원 역)

고 하였으니, 배덕표는 늘면서 넘쳐나는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며 나눈 인물ियो, 그 나눔이 생명 구체 이상으로 나아갔던 인물이다. 또 시기에 맞추어 동식물을 키우고 거두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세이니 동식물과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도 할 만하다.

이침은 그의 “인의 시행이 넓다”고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삶을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대개 인을 실천하는 것은 가족을 친애하는 데에서 백성을 돌보고 사물을 사랑하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夫仁之所施, 自親親而仁民而愛物)” 앞에서 가족에게 한 것을 먼저 말해 두었다가 뒤에서 이웃과 동물에 한 것을 말한 뒤에 이것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런 원리와 이런 실천적 예는 이곡이 「의재기」에서 표현한 생각과 같은 원리에 의한 것이다.

이 원리는 나눔 정신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당연한 듯 기본인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눔 정신을 이루는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인, 즉 사랑의 실천, 나눔의 실천이란 가족에 대한 마음으로 남과 자연을 돌보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맹자』에서 설명하는 원리와 다르지 않다. 나라에 이익이 될 것을 묻는 양혜왕에게 맹자는 “내 노인을 대하듯 남의 노인을 대하고, 내 아이를 대하듯 남의 아이에게 한다면 천하를 손바닥 뒤집듯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²²⁾라고 하였다. 이런 원리를 적용시키면 당연히 나눔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듯 내 아이만한 아이를 사랑하고, 내가 내 아버지를 귀히 여기듯 내 아버지의 친구들인 그 연배의 노인들을 귀히 여기면 이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없이 모두 가족이 된다.

한국 사회의 기부의 특징을 살필 때, 한국인은 사회적 기부보다는 개인의 연결망 안에서만 나눔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경조사를 통한 상

22) 『孟子』, 「梁惠王章句上」: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호부조나 지인에 대한 직접 기부 등의 액수를 보면 한국인의 기부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이를 두고 기부의 전근대성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국가나 기관, 제도 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기부를 늘리는 것이 발전된 현대 사회 기부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³⁾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서구 중심의 발전론에 기준을 둔 평가일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사회는 최소 유교 사상이 확립된 이후에 위와 같은 ‘가족개념을 확산한 仁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가족 중심’이라는 특성은 그런 정신적 연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가족 중심의 나눔이나 기부를 전근대성이라 설명할 것이 아니라, 동양문화의 특성으로 보고 오히려 이것을 되살리고, 널리 전파하는 것이 더 많은 나눔이나 기부를 일으킬 수 있다.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인식을 더 널리 전파하고 공유한다면, 가족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 범위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될수록 오히려 강한 응집력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인식을 보인 이곡의 「의재기」 등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VI. 마치며

복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나눔 문화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나눔 문화에 대한 사상과 사례를 문헌적으로 실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그 한 사례로, 고려 후기

23) 김형용, 「포용적 사회와 나눔 문화의 현실」, 『한국의 나눔문화와 복지사회』, 아산사회복지재단, 2013, 102-103쪽.

의 대표적인 신진사대부이자 초기 성리학의 정착에 큰 공헌을 했던 이곡의 산문 두 편 「차마설」과 「의제기」에 주목하였다. 이 두 작품을 살펴보고 이것에 어떤 사상이 담겼으며, 그것이 오늘날의 나눔 문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살폈다.

「차마설」은 개인이 가진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빌린 것은 돌려줄 때가 있기 때문에 돌려주고 나면 아무리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도 자신은 남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된다. 지위의 유동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관계성과 유동성 등을 인지할 때 사회 전반의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제기」는 전반적으로 형제우애를 강조한 글이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순서의 문제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의 원리로 인의 확충을 내세웠다. 개인이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 간에 구제하는 일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 사회 전반으로까지 그 인의 마음을 확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나눔 문화가 된다. 그리고 이런 ‘가족을 위하는 마음과 행동의 확산’이야말로 서양과 다른 동양 나눔 문화의 특징으로 설명될 만한 것이다.

복지나 나눔, 기부 등은 사회학, 복지학, 경제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우리 전통의 자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미처 연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옛 자료는 원전 해독 능력, 옛 역사와 문화 등 국학 분야에 관한 지식 등을 갖추어야 접근할 수 있는데, 사회학 등 여러 분야 학자가 그것까지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국학자의 경우는 복지, 나눔, 기부 등의 주제 분야를 자신들의 전공분야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드문 형편이다. 하지만 한 나라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문화·역사적인 연원, 인식의 영향력까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 국학자가 복지나 나눔, 기부 등의 사회문제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 『동국이상국집』, 『가정집』, 『역옹패설』, 『동문선』 등 국학원전 다수

고혜령, 『고려후기 사대부와 성리학 수용』, 일조각, 2001, 1-307쪽.

김대행, 「이곡의 「차마설」과 사고의 틀」, 이상익 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767-769쪽.

김인호, 『고려후기 사대부의 경제론 연구』, 해안, 1999, 1-287쪽.

김형용, 「포용적 사회와 나눔 문화의 현실」, 『한국의 나눔문화와 복지사회』, 아산사회복지재단, 2013, 91-95쪽

서신혜, 「조선시대 부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몇 인식에 대한 연구」, 『고전과 해석』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10, 129-155쪽.

신원기, 「넓은 '읽기'를 위한 「차마설」 해석」, 『문창어문논집』36집, 문창어문학회, 1999, 27-61쪽.

이광모 외 2인, 「다산의 복지공동체 행정사상 연구-『牧民心書』의 “愛民6條”·“賑荒6條”를 中心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24집 3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10, 139-164쪽.

이병혁, 『고려말 성리학 수용기의 연구』, 태학사, 1989.

이병희, 『고려후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8, 1-625쪽.

이세영, 「조선후기의 勸分과 富民의 실태」, 『역사문화연구』34,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157-263쪽.

정수현 정경조, 「동·서양 이상적 인간상의 가치규범-忠恕와 Nobleses oblige」, 『한국사상과 문화』6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325-348쪽.

주강현, 『한국의 두레』1, 집문당, 1997, 1~462쪽.

최익한 저, 송찬섭 편, 『조선 사회 정책사』, 서해문집, 2013, 1-240쪽.

한신애, 「광주지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 일제 강점기부터 고도 성장기를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57쪽.

황재국, 『가정 이곡의 한시 연구』, 보고서, 2006. 1-286쪽.

Abstract

Two Narratives Written by Gok Lee(李穀) from the Perspective of Sharing-Culture: 「Chamasul(借馬說)」 and 「Wejaegi(義財記)」

Seo, Shin-Hye

With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social-welfare, it becomes an imperative challenge to prove any historical data, which traces to the origin of "sharing-culture" in the history of our nation. In this vein, this article pays focused-attention to two narratives written by Gok Lee (李穀). Firstly, 「Chamasul」 provokes the importance of borrowing from others. Here, the term "borrowing" denotes that personal wealth is to be indebted much to the necessity of others. As a result, this concept of borrowing as a mutual intersec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could cause all the people to be humble as well as share their possession. Furthermore, 「Wejaegi」 expands the brotherhood to the friendship in sharing social advantages. This social tolerance originates from a broad application of "In"(仁); this ambivalence proliferates the concept of family into nation. Also, the other writers in the same generation of Gok Lee presents a similar culture of sharing.

All things considered, this article intends to prove a historical trend-the expansion of sharing culture in the late period of Korea (高麗).

Key Word

sharing-culture, Gok Lee(李穀), Chamasul(借馬說), Wejaegi(義財記), a broad application of "In"(仁)

▪ 논문투고일 : 2014.6.29. 심사완료일 : 2014.8.11. 게재결정일 : 2014.8.12.